



충청지역

회화나무

죽은 행자승의 영혼이 서린 회화나무

✿	지정번호	충성-8-12-10-245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지정년도	1982		내갈리 129
	관리기관	홍성		36° 36' 31.26" N
	수령	316년		126° 33' 59.04" E
	수고	23m		
	흉고둘레	2,3m, 1,9m		

1982년에 지정된 보호수(충성-8-12-10-245)회화 나무는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 자라고 있다. 옆과 앞에는 농가가 있고, 뒤쪽은 밭과 동산이 있는 곳이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316년으로 추정되지만 주민들은 550여 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내 표지판이 소실되어 보이지 않아 나무나이의 정량적인 특징을 참고하기가 어려웠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2갈래 중 1개가 230cm, 다른 1개가 190cm 정도이고, 밑동둘레는 410cm 가량이다. 원줄기는 1m 높이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져 전체적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으며, 낮은 산야의 언덕배기 경사지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다. 쉼터의 정자가 경사지의 보호수 아래쪽과 맞닿아 있으며, 회화나무의 뿌리가 뻗은 밑동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웅달샘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웅달샘을 '젯샘'이라 부르고 있다. 동네의 마을 주민은 웅달샘의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말하지만 언뜻 보기에 식수로 쓸 정도로 맑지 않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행자승의

상사병 및 웅달샘의 '젯샘' 이름유래와 관련한다. 옛날 회화나무 위쪽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었고, 그 절에는 노승이 살고 있었다. 노승은 어느 날 오갈 곳이 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행자로 삼아 훗날 후계자로 여기며 키우고 있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속세의 처녀를 짝사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처녀의 부모는 딸이 행자승과 애절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서둘러 어느 부잣집 총각과 결혼을 시켰다. 그 후 행자승은 불사에 관심이 없고 출가한 처녀만 생각하다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만다. 그러자 철철 넘쳐 흐르던 웅달샘의 물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줄어들고, 자주 회화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웅달샘 위로 떨어져 샘물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 노승은 이를 행자승의 눈물이며 영혼이라 여겨 이를 달래려고 온종일 기도를 하였다. 마을에서는 정월보름날이면 이 회화나무 아래의 웅달샘에서 제를 지냈다. 그래서 이 웅달샘을 젯샘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마을 단위가 아니지만 근처의 몇 농가에서 정월보름날에 젯밥을 올린다.